

## 한국어로 본 한국문화

1판 1쇄 발행 2019년 8월 15일

지은이 | 백두현, 송지혜, 송현주, 안미애, 정수진, 홍미주, 최준, 배준영, 안주현, 김정아

펴낸이 | 김진수

펴낸곳 | 한국문화사

등 록 | 1991년 11월 9일 제2-1276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 IT캐슬 1310호

전 화 | 02-464-7708

팩 스 | 02-499-0846

이메일 | hkm7708@hanmail.net

웹사이트 | www.hankookmunhwas.co.kr

ISBN 978-89-6817-???-? ?????

-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 잘못된 책은 구매처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 한국어의 관용 표현

### 학습목표

- ✓ 관용 표현 속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의식을 알 수 있다.
- ✓ 속담 속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 완곡어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 ✓ 새로운 관용 표현을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 생각거리

- 1** 다음은 최근에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한다. 이런 관용 표현에 나타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생각해 보자.

열 받다, 쪽 팔리다, 히트 치다, 로켓을 태우다, 펌프질 하다

- 2** 다음 표현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어떤 상황에서 쓰면 될지 이야기해 보자.

- 삼성은 신중을 기하며 영입 리스트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절대 서 두르지 않는다. 돌다리를 하나하나 두드리며 건너고 있다. 삼성은 직접 ‘두 눈’으로 외국인선수를 보고 판단한다. 2017시즌부터 고수하는 방식이다. ‘건강한 몸’인지 국내 병원에서 메디컬테스트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 (MK스포츠, 2018. 11. 29.)
-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강 모(32) 교사는 수학능력평가시험이 끝난 후 고삐 풀린 제자들을 통제하는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 씨는 “파마나 염색은 양반이다. 문신이나 피어싱을 하고 등교한다.(이데일리 2018. 11. 28)

3 ‘장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최근에는 이 말이 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각 장애인’으로 순화되었다. 또 ‘병어리’는 ‘언어 장애인’으로 ‘병신’은 ‘지체 장애인’으로 순화되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장님, 병어리, 병신’이 비하의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이 확대되면서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1 한국어의 관용표현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언제나 변화한다. 언어는 한번 만들어지면 모습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박물관의 박제가 아니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모습과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환경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도 언어는 변화를 겪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보다 참신한 표현을 생각해 내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언어는 변화를 겪게 된다.

- (1) a. 아버지 대신 인민군에 맨발로 끌려간 오빠 그게 恨이 된 엄마는 평생 가슴 태우다 끝내... (조선일보, 2010. 11. 01.)
- b. 5일 증권가를 통해 불거져 나온 두 사람의 결혼설은 이날 오후 한 매체가 기사화하면서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매일경제, 2009. 11. 05.)
- c. 유족들은 관 속에서 영면에 들어간 김 추기경을 향해 3~4차례 성수를 뿌리며 하늘로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조선일보, 2009. 02. 20.)

(1a) ‘가슴을 태우다’는 무엇인가를 몹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 사용된 ‘가슴’과 ‘태우다’는 아주 쉬운 단어

로 특별한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a)의 상황에서 ‘가슴을 태우다’는 ‘걱정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관용 표현(慣用 表現, idiomatic expression)**이라고 한다. 또 (1b)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날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俗談, proverb)**이다. 속담은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오랜 시간동안 사용되다가 지금까지 전해진 것으로 특히, 교훈과 풍자가 담긴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1c) ‘영면(永眠)에 들다’는 ‘영원히 잠들다’는 뜻의 표현으로 ‘죽음’을 가리킨다.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것인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려는 의도로 사용하는 표현을 **완곡 표현(婉曲 表現, euphemism)**이라고 한다.

관용 표현의 영역을 좁게 보면 굳어져서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 구성 요소들이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가지는 언어 표현을 가리킨다. 반면 넓게 보면 인사말이나 간접적인 표현들까지도 포함되는 언어 표현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한다. 이번 단원에서는 좁은 의미의 관용 표현들과 관용 표현과는 유사하지만 사용 양상이 다른 속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국의 금기 문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완곡 표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완곡 표현은 금기시되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문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평가 받는다. 이런 언어 표현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관용 표현을 살펴보면 해당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sup>1)</sup>

한국어 관용 표현과 속담, 완곡 표현이 갖는 의미와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가지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표현들

---

1) Gibbs 1994: 367 참고.

은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한국어에 있는 표현들과 서로 비교하면 문화의 공통된 특징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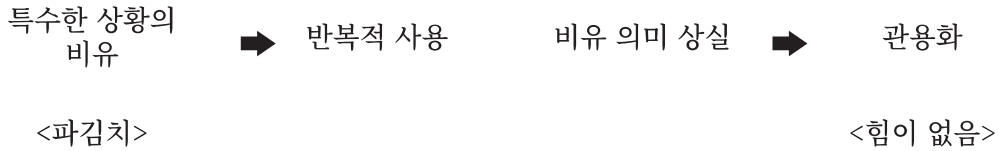
## 2 관용 표현

### 2.1 관용 표현의 생성과정과 구조적 특징

파는 원래 뾰뾰하고 힘이 있는 채소인데 파에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김치를 만들면 생기를 잃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힘이 없는 상태를 양념이 된 파에 비유해서 ‘파김치가 되다’라고 표현한다. 관용 표현<sup>2)</sup>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일부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비유적인 성질을 잃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표현을 말한다. 어떤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가 힘이 빠진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던 ‘파김치가 되다’라는 표현이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다가 구체적인 의미가 점차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비유의 성질을 잃어 버린 채로 사용하게 된다. 즉 관용 표현은 비유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점차 일반화·보편화되어 언중들에게 관용적으로 쓰이게 된 표현이다.

---

2) 관용 표현의 범위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관용어, 관용구, 관용 표현, 속어, 익힘말, 익은말’ 등의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이것은 관용 표현이 고사성어나 유행어와 같은 단어와 관용어구, 그리고 속담이나 표어와 같은 문장 단위까지 포함하고, 더 넓게는 유행담이나 인사말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민현식 2003: 18)



<표 1> 관용 표현의 생성 과정

관용 표현은 비유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단어 이상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휘들과는 구별되지만 다른 어휘들과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즉 언어가 변화와 생성,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관용 표현도 늘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생성 당시에는 많이 쓰이면서 호응도가 높다가 점점 낮아져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높은 호응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관용 표현들도 과거의 그것과 같이 호응도에 따라 곧 없어지기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도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바뀌면서 관용 표현도 바뀌는 경우, 새로운 문물이 생기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             |    |   |    |   |    |
|-------------|----|---|----|---|----|
|             | 과거 | ➡ | 현재 | ➡ | 미래 |
| 호<br>응<br>도 | 강  | 강 | 강  |   |    |
|             | 강  | 약 | 소멸 |   |    |
|             |    |   | 강  | 강 | 강  |
|             |    |   | 강  | 약 | 소멸 |

<표 2> 관용 표현의 생성과 소멸

- (2) a. 바가지(쪽박)를 차다 > 깡통을 차다
- b. 간담이 썩다, 애가 끊어지다
- c. 못 먹어도 고(go)다, 카드를 굶다

과거에 동냥을 하러 다닐 때 쓰던 ‘바가지’에서 (2a)의 ‘바가지를 차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는데, 관용 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바가지’가 사

라지면서 이를 대체하는 ‘깡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관용 표현의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되 구성 요소가 사라지고 새로운 구성 요소로 대체된 예이다. (2b)는 현재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의 예이다. 과거에는 사용 빈도가 높았으나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는 ‘고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2c)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표현으로 게임(고스톱)에서 유래한 표현이나 새로운 물건(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표현이다.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관용 표현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관용 표현을 보면 생성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관용 표현을 살펴보면 요즘 젊은 세대의 성향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3) a. 제 눈에 안경이다, 전화통에 불이 나다.
- b. 열 받다, 골 때린다, 죽인다.
- c. 로켓을 태우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다. 선풍기 앞에서 부채질한다.

(3a)는 ‘안경’과 ‘전화’가 생겨난 후에 만들어진 표현으로 개화기 이후에 만들어진 표현이다. 새로운 문물이 도입된 시점을 알면 관용 표현의 생성 시기도 짐작할 수 있다. (3b)는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관용 표현인데 부정적이고 과장된 인상을 준다.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을 알 수 있다. (3c)는 기존에 사용하던 관용 표현에 새로운 대상을 이용해 창의적으로 만든 관용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만든 사람들의 참신함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한편 관용 표현은 구조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문장의 형태도 있고 일부가 생략되어 실현되는 것도 있다.

---

3) 문금현(1999: 124-125)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선호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항목은 세대에 상관없이 현대적 정서에 맞지 않는 고어적 표현인 ‘황천객이 되다, 간담이 썩다. 간장이 끊어지다. 뒤를 보다’ 등이다.

- (4) a. 주어+서술어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구나.  
 b. 목적어+서술어                      이번 주에 영희가 시집(을) 간대.  
 c. 부사어+목적어+서술어            그 친구는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어.  
 d. 기타                                      이번에는 미역국이 아니겠지?

(4a-c)는 일반적인 관용 표현의 구조이다.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 ‘부사어+목적어+서술어’구조이다.<sup>4)</sup> 대체로 ‘명사(주어, 목적어)+동사(서술어)’구조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4d)는 (4a-c)와 다른 특이한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d)는 ‘미역국을 먹다’(낙방하다)라는 관용 표현에서 서술어 ‘먹다’가 생략되고 목적어인 ‘미역국’만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누구나 쉽게 ‘미역국을 먹다’를 연상할 수 있다. 이것은 관용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구성 요소 중의 일부 단어가 갖는 독립적인 의미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즉 ‘미역국을 먹다’라는 표현에서 ‘미역국’과 ‘먹다’ 중 ‘미역국’으로도 ‘낙방하다’의 의미를 모두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미역국’이 표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는 관용 표현 중에서는 이렇게 대표성을 갖고 표현의 일부만을 사용해도 의미가 통용되는 경우도 있다.

- (5) a. 가: 그렇게 입이 가벼워서야...  
       나: 제가 (입이) 가볍기는 뭐가 가벼워요?  
 b. 너 정말 간이 부었구나? 부었어.

(5a)의 ‘가볍기는’, ‘가벼워요’는 선행하는 주어 ‘입’이 생략되었고, (5b)의 ‘부었어’도 선행하는 주어 ‘간’이 생략되었다. 하지만 모두 앞선 사람의

---

4) 기가 막히다, 물이 오르다, 손이 곱다(주어+서술어), 시집을 가다, 국수를 먹다(목적어+서술어), 눈 밖에 나다, 손에 붙다, 손에 넣다(부사어+서술어), 눈에 흙이 들어가다, 눈에 불이 나다(부사어+주어+서술어), 손에 땀을 쥐다, 손에 손을 잡다(부사어+목적어+서술어) 등의 유형이 있다.



말이나 선행하는 문장을 통해서 주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서술어가 생략된 (4d)와는 달리 주어가 생략된 (5a, b)는 앞뒤 문맥을 통해 생략된 주어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미를 전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주어나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관용 표현은 ‘일정 시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표현’<sup>5)</sup>이라는 점에서 일부가 생략되어도 전체 의미가 쉽게 유추된다. 관용 표현은 이미 굳어져 사용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표현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의 일부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 2.2 관용 표현의 의미적 특징

관용 표현은 구성 요소 각각의 합이 아닌 새로운 제3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관용 표현의 의미 :  $A+B=C$

즉 관용 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A와 B라면 그 의미는 ‘AB’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인 ‘C’가 된다.

(6) 손을 잡다: 손 + 잡다 = [협력하다]

(6) ‘손을 잡다’ 는 [협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으로, 구성 요소인 ‘손’과 ‘잡다’가 결합해서 ‘협력’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도출되었다. ‘손’과

---

5) 민현식(2003: 18)은 원래 ‘관용(慣用)’이란 말은 ‘습관적으로 늘 씀’ 정도의 뜻풀이를 하고 있다. ‘관용’의 뜻 안에 내포된 ‘습관’이란 말은 시간성에서도 반복성, 지속성을 내포하는 말이다. 따라서 ‘관용어’이란 ‘일정 시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언어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잡다’는 각각 ‘신체 일부’와 그 신체 일부로 할 수 있는 ‘동작’이다. 하지만 ‘손을 잡다’는 ‘손’과 ‘잡다’ 각각의 의미가 살아 있지 않고 새로운 의미, 즉 [협력하다]로 쓰인다.

관용 표현을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언어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구성 요소와 의미를 살펴보면 한국 문화의 특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한국어 관용 표현 중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많다. 전체 관용 표현 중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 (7) 화(분노): 골머리를 썩이다, 기가 막히다, 입에 거품을 물다, 인상을 쓰다, 이가 갈리다, 속을 끓이다, 속이 터지다, 부아가 나다  
기쁨: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뭉클하다, 속이 풀리다, 입을 다물지 못하다, 입이 찢어지다  
부끄러움: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뭉클하다, 속이 풀리다, 입을 다물지 못하다, 입이 찢어지다  
슬픔: 가슴이 저리다, 가슴이 아프다, 애가 타다, 애가 끊다, 애간장이 녹다, 애간장이 타다  
즐거움: 가슴이 후련하다, 어깨가 가볍다, 머리가 가볍다  
두려움: 등골이 서늘하다, 등골이 오싹하다 소름이 끼치다, 소름이 돋다

겉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감정’을 표현할 때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8) a. 나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다**.  
b. 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화끈거렸다**.

(8a-b)는 의미는 서로 같지만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8a)는 ‘부끄럽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8b)는 ‘얼굴이 화끈거렸다’라는 관용 표현을 통해 표현했다. (8a-b)는 궁극적으로 의미가 같지만 표현 효과가 서로 다르다. ‘부끄러움’이라는 일반적인 감정을 ‘얼굴이 화끈거리다’라는 특수한 신체 변화를 빌려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 표현들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한

국민에게는 효과적인 표현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관용 표현에는 신체와 관련된 어휘가 많이 사용된다는 특징도 있다

- (9) 몸: 몸살이 나다, 몸에 배다, 몸을 풀다, 몸이 굳다, 몸이 무겁다  
얼굴 낫: 낫 뜨겁다, 낫이 익다, 얼굴에 철판을 깔다, 얼굴이 반쪽이 되다  
눈: 눈 깜짝할 사이, 눈엣가시, 눈에 흙이 들어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귀: 귀 기울이다, 귀에 못이 박히다, 귀가 가렵다, 귀가 솔깃하다  
입: 입만 아프다, 입이 싸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목: 목소리를 깔다, 목소리가 크다, 목에 힘을 주다, 목을 놓다(울다)  
가슴: 가슴이 트이다, 간담이 서늘하다, 가슴에 못을 박다, 가슴을 열다

(9)의 예 이외에도 많은 신체와 관련된 관용 표현들이 많다. 신체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표현 요소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상황을 표현하는 관용 표현에 자주 등장한다.

### 3 속담

#### 3.1 속담의 구조적 특징

속담(俗談, proverb)은 오랜 전에 만들어져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민간에 전해진 말이나 이야기이다. 대체로 간단한 형식과 비유를 통해 삶의 진리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 또 세태를 풍자하기도 한다. 보통 하나의 문장이나 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담을 통해서 옛날 사회의 모습, 가치관,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속담은 관용 표현과 구조적인 면에서나 의미적인 면에서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형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어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관용 표현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문맥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사용되는 관용 표현과는 달리 속담을 사용할 때는 인용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운율(韻律, rhythm)**을 가지는 것도 관용 표현과는 다른 속담의 특징이다.

(10) a. 어찌나 **바가지를 긁어대는지**.

b. 이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속담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사용되며 문맥에서는 이것을 인용하는 표지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0a)는 특별한 인용표지 없이 문맥에 녹아서 사용되는 관용 표현의 예이다. 이와 달리 속담인 (10b)는 ‘-(라)는’이라는 인용 표지를 통해서 문장에서 실현된다. 속담은 인용이 자유롭기 때문인데 실제로 일상 대화에서 ‘-(라)고 하더니, -(라)고 하니’와 같은 인용 표지나 ‘-듯이, -처럼, -같이’와 같은 직유 표지를 붙여 자유롭게 사용된다. 속담은 그 전체가 고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관용 표현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속담은 구성 요소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특성도 있다. 즉 동일한 비유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성 요소를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11) a.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 = 산이 **커야** 골이 깊다 = 산이 **커야** **그늘이** 크다

b.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

(11a)의 ‘높다’와 ‘크다’는 큰 산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비슷하고, ‘골’, ‘굴’, ‘그늘’은 속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비유적 의미가 동일하다. (11a)의 구성 요소들의 의미는 서로 유연하게 사용된다. (11b)도 ‘말’과 ‘정’이 가지는 비유적인 의미가 비슷하고 표현의 의미도 비슷하게 사용된다.

속담의 특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은 무엇보다 운율이라고 할 수 있다. 속담은 ‘언중의 시’라고도 한다. 그만큼 구전되는 과정에서 시와 같은 운율을 얻게 된다.

(12) a. 가는 날이 / 장날이다, 냉수 먹고 / 된똥 누기

b. **물어도** 준치 / **씩어도** 생치

c. **핑 먹고 / 알 먹고**, **윗물이 맑으면 / 아랫물도 맑다**

(12a)는 글자 수가 4·4로 이루어져 운율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다. (12b)는 글자수도 3·2, 3·2로 운율감 있게 맞추었고 ‘어도’와 ‘치’를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12c)는 ‘먹고-먹고’, ‘맑으면-맑다’처럼 같은 서술어를 되풀이 하면서 운율을 더했다.

다음으로 속담은 풍자와 교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13) a.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
- b. 낮말을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13a)는 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들어주는 것을 풍자하여 표현한 것으로 속담의 풍자적 특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13b)는 언제나 말을 조심하라는 교훈을 주는 표현이다. 과거의 언중들은 속담을 통해 바른 행동과 바르지 않은 행동, 선과 악을 가렸고, 이것은 다음 세대가 알아야 할 교훈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속담은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 (14) a. 쉽다: 누워서 떡 먹기 = 땅 잡고 헤엄치기 = 식은 죽 먹기
- b. 말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c. 긍정적인 생각이 좋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 고생 끝에 낙이 온다

(14a-c)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로 이외에도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은 더 많이 있다. 속담의 유래는 다르지만 그것을 만들어 전승하는 언중들의 생각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풍자나 옳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교화하려는 옛날 사람들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 3.2 속담의 의미적 특징

‘시집살이 하려면 병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해야 한다.’는 말은 한국 사람에게는 누구나 익숙한 속담이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시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기위해 적응하려면 말도 많이 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말에 지나치게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를 얻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미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속담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가정에서 여성의 권위가 아주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속담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민족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속담에서도 한국의 특징적인 문화와 한국인의 가치관을 찾을 수 있다.

- (15) a. 여자와 소인은 가까이 하지 마라.
- b. 여자가 너무 알면 팔자가 세다.
- c.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15a-c)는 주로 여성과 관련된 속담인데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이런 예는 흔히 찾을 수 있다. 여성을 비하하는 가치관은 남성과의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 사회의 남존여비 사상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계속 유지되어왔다. 속담은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언어의 변화는 사회문화의 변화보다 늦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여성을 비하하는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지만 언어로 표현된 속담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 (16) a.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 b. 자식 둔 골은 호랑이도 돌아본다.
- c.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국 사회는 옛날부터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가족 문화가 발달했고 친족어가 발달했다. 그리고 속담에도 가족과 이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많다. (16a-c)의 예가 그렇다. (16a)는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고충, (16b)는 자식에 대한 애뜻한 마음, (16c)는 혈연 향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최근에는 한국 문화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경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16a-c)와 같은 속담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족, 혈연 집단을 향한 강한 마음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17) a. 고생 끝에 낙이 있다.
- b.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 c.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d. 열 번 짝어 아니 넘어 가는 나무 없다.
- e.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17a-e)는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속담들이다. 외세의 잦은 침략과 전쟁, 식민지 침탈 속에서도 우리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끈기 있는 민족성과 낙천적인 마음 때문이다. 이 같은 긍정적인 민족성은 시나 민요, 소설 등의 문학작품 속에 남아있다. 또한 속담에도 이 같은 낙천적인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말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생각, 체면을 중시했던 선조들의 모습 등을 엿볼 수 있는 속담들도 있다. 그리고 농경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농사나 날씨, 곡식(음식)과 관련된 속담도 많이 있다. 이렇게 속담은 한국 사회의 전통문화와 한국 민족의 민족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 4 완곡 표현

### 4.1 금기어와 완곡 표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부정적인 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들이 있다.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내 말하기 어려운 신체의 일부분에 대한 명칭이나 배설 행위,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말이 그렇다. 또 죽음, 질병 등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행한 상황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말들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속되고 점잖지 못하고 예절 없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반면에 완곡하게 표현하면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금기어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이 아니라는 점에서 완곡한 표현은 중요하다(임지룡 외 2005: 223).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대상은 문화마다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대상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부정의 느낌을 주는 것을 꺼리고 피하려고 하는 것을 **금기(禁忌, taboo)**라고 하고, 이런 어휘들을 **금기어(禁忌語, taboo term)**라고 한다. 또 이것을 완곡해서 사용하는 대체형을 **완곡 표현(婉曲 표현, euphemism)**이라고 한다. 금기는 단순히 옳거나 그르다, 혹은 좋거나 나쁘다는 일상적인 판단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것은 신념과 문화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기어와 완곡 표현을 통해서도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의 금기어 중에서는 인간 생활과 관련된 금기어가 가장 많다고 한다(박정열 · 최상진 2003: 45). 다음으로 꿈, 동 · 식물, 자연과 관련된 것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간 생활과 관련된 금기어 중에서는 의식주, 가재도구, 통과 의례, 시간, 신체부위, 질병, 대인관계, 남녀, 인물 등과 관련된 금기어가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의식주나 통과 의례에 대한 금기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의식 속에 의식주나 통과의례가 가지는 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4.2 완곡 표현의 특성

완곡 표현에는 모든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어휘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완곡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또 대부분의 언중들에게는 일반적인 어휘로 인정되지만 특정한 일부 언중들에게만 완곡 표현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에 관련된 어휘, 생리작용에 관련된 어휘, 질병과 죽음에 관한 어휘 등은 보편적인 금기의 대상으로 이에 대응하는 완곡 표현이 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과 일부의 언중들에게만 쓰이는 완곡 표현들이 있다. 산 중에서 호랑이를 ‘손님’이라고 하거나 ‘신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 특정한 상황, 즉 산중에서 맹수의 이름을 입에 담게 되거나 듣게 되면 실제로 그 짐승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산에서는 ‘호랑이’를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함흥 등지에서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손님’이라고 해야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18) a. 성(姓)에 관련된 어휘: 유방 > 가슴
- b. 생리작용에 관련된 어휘: 똥 > 대변, 오줌 > 소변, 변소 > 화장실측간  
          똥오줌을 누다 > 볼일을 보다·뒤를 보다
- c. 질병에 관련된 어휘: 천연두 > 마마큰손님, 홍역 > 작은 손님  
          죽다 > 세상을 뜨다·운명하다·돌아가다……

(18a-c)는 자주 사용하는 완곡 표현이다. 전통적으로 금기시되는 것들을 이렇게 완곡해서 표현했다. 대부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18a)는 수치스러워서 말하기 힘든 성(姓)에 관한 것이고 (18b)는 더러워서 말하기 꺼려지는 대상들, (18c)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18a-c)는 누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 (19) a. sex > sxe  
 b. die > pass away  
 c. 13th Ave > ∅

성에 관한 것이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은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19a)와 (19b)는 성과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데 (19a)와 같이 철자를 바꾸어 쓰거나 (19b)와 같이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 또 (19c)는 영어권에서 금기의 숫자인 ‘13’을 피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13번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완곡 표현 중에는 특수한 경우에만 쓰이는 것도 있다.

- (20) a. 호랑이 > 손님, 신령 (산 중에서)  
 b. 예쁘다, 잘 생기다 > 밍다 (아이에게)

(20a)는 산 중에서 맹수를 직접 부르면 실제로 만난다고 믿어 ‘반가운 손님’이나 신성하게 여기는 ‘신령’으로 부름으로써 맹수를 노하지 않게 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표현이다. (20b)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무겁다’거나 ‘예쁘다’ 등의 말을 하면 신이 아기를 질투해서 아기를 잘 못 자라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밍다’라고 표현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완곡 표현이다.

일반적인 완곡 표현은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주로 미신이나 민간의 믿음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완곡 표현들은 거부감을 없애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비하의 느낌을 주는 것을 피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 또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완곡 표현에는 영어를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거북한 표현을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이고 거북한 느낌을 없애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

- (21) a. 장사꾼 > 상인, 노동자 > 근로자
- b. 장님 >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 c. 간호원 > 간호사, 운전수 > 기사
- d. 중> 스님, 청소부 > 환경미화원
- e. 엉덩이 > 히프(hip), 돈놀이 > 재테크(再tech), 첩(妾) > 세컨드(second)
- f. 四 > F

(21a)는 대상을 비하하는 느낌이 있어서 상대에게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곡해서 쓴 표현이다. (21b)도 (21a)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을 완곡해서 듣기 좋게 쓴 예이다. (21c)는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사(士)’ 혹은 ‘사(師)’를 써서 대상을 높이 표현한 예이다. (21d) ‘스님’도 (21c)와 마찬가지로 ‘중’을 높이 표현하기 위한 예이고 ‘환경미화원’도 ‘청소부’에 대한 비하의 느낌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표현이다. (21e)는 듣기 거북한 말을 영어로 쓴 것인데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연상을 피할 수 있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다. (21f)는 위의 예와는 조금 다른데 건물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4층’의 ‘四’가 ‘死’를 연상하게 한다고 하여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F(four)’로 완곡해서 표현함으로써 ‘죽음(死)’ 대한 연상을 피했다.

완곡 표현은 지금 현재에도 계속 만들어 지고 있다. 사회의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금기의 대상도 다양해졌다. 그래서 이런 금기의 대상에 대한 완곡 표현도 자연스럽게 바뀌거나 많아지게 된 것이다.

- (22) a. 감옥 → 형무소 → 교도소
- b. 식모 → 가정부 → 파출부 → 가사 도우미

새롭게 만들어지는 완곡 표현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있던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만들어져서 사용하다가 그것이 일반화되면 사용자들에게는 완곡하게 표현했던 대상이 어느새 다시 부정적이고 불쾌한 대상이 환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다른 완곡 표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한 가지 지시대상에 대한 완

곡 표현이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 기존에 쓰던 표현이 없어지고 새로운 표현이 통용되다가, 또 다시 없어지고 새롭게 생겨나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금기에는 여러 개의 완곡 표현이 있을 수 있다. (22a, b)가 그런 예이다. (22a, b)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완곡 표현을 만들어 사용하는 예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완곡 표현의 사용 기간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연상이 환기되지 않을 때까지라고 할 수 있다.

## 용어정리

- 관용 표현
- 속담
- 완곡 표현

## 토의거리

1. 관용 표현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한다. 지금 사용하는 관용 표현에는 과거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어휘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과거 거지들이 가지고 다니던 ‘바가지’에서 ‘바가지를 차다’는 표현이 만들어졌는데, ‘바가지’ 대신에 ‘깡통’이 쓰이면서 ‘깡통을 차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이렇게 관용 표현은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렇다면 요즘 새로 만들어진 관용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찾아보자.
2. 속담 속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나 한국인의 가치관이 숨어있다. 다음 속담들에서는 어떤 문화나 가치관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속담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1) a.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b.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2) a. 빈 수레가 요란하다  
b.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3.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금기를 만나게 된다.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나는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찾아보자. 그리고 금기어에 대응하는 완곡 표현을 찾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없으면 어떤 표현이 좋은지 생각해 보자.

## 더 읽을거리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15호, 이중언어학회.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의 필요성과 방법을 논한 논문이다. 외국인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관용표현을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빈도와 외국인이 인지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목록으로 만들었다.

심재기 채완(2002), 『언어와 의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 책의 11강과 12강에서는 속담에 대해, 13강과 14강에서는 관용표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관용표현에 대해서는 생성과 소멸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어떤 관용표현이 있었는지도 정리하고 있다.

김충실 이길연 양동훈(2006), 『관용어로 배우는 한국어』, 박이정.

- 먹다 마시다, 음식, 생물 등 몇 가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관용 표현을 모아 정리했다. 특히 이 책은 관용 표현의 유래에 대해 상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 참고문헌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민현식(2003), 「관용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의미학』12, 17-50.

임지룡 외(2005),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212-230.

박정열·최상진(2003), 「금기어(禁忌語)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일반』22-1, 45-61.

Gibbs, Raymond W. (1994), 『The Poetics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나익주 옮김. (2002). 『마음의 시학』, 한국문화사)